



의 사는 자신의 환자가 고난을 딛고 일어섰다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된다. “원장님, 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기쁘지 않고 불안하고 떨려요. 혹시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떻하죠?”

얼마전 여성 환자가 다음달에 결혼하게 되었다며 찾아왔다. 본 병원에 8년전부터 야뇨증으로 고생하며 찾아오던 환자이다. 그녀가 처음 찾아왔을 때는 일주일이 멀다하고 이부자리가 성한 밤이 없었다. 아침에 이부자리를 말리고자 밖에 내다 널 때면 남이 볼까 두려워 가슴을 조였다.

일찍 학교를 마치고마자 시골에서 올라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있었다. 얼마되지 않는 봉급에 혼자 생활하기에 빠듯하였다.

가급적 불필요한 경비는 줄이는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자취비는 생활비에서 비중이 가장 컸다. 친구들은 자취비를 절감하자며 방을 함께 사용하자는 제의가 심심치않게 있었다.

그러나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의 요구에 선뜻 응할 수는 없었다. 낮이야 남들처럼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다 큰 처녀가 밤만 되면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실례를 하는 것이다. 남들이 자신의 비밀을 알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미인박복(?)인지는 몰라도 얼굴이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근처에 사귀자고 오는 남자들도 많고 소개받는 남자들도 많았다. 그러나 그들과 시원스럽게 사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일 남들이 자신의 처지를 알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쉽게 어울리지 못한 것이다. 여행을 가자고 해도 마다하여 친구들에게 오해도 많이 받았다.

과거 처음 진찰실에 들어왔을 때는 창피해하며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 애도 아닌 다 큰 처녀가 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싼다는 것에 자존심이 무척 상해 있었다.

얼굴엔 웃음이 없었으며 성격도 내성적으로 변해 있었다. 야뇨증에 대한 검사를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어른이 되도록 지금까지 한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었다. 어려서는 집이 가난하여 부모님이 신경을 써주지 못하였다.

학교를 다닐 때는 자신이 정작 부모님에게 숨기면서 지내왔다. 커서는 창피한 마음에 병원에 갈 생각도 하지 못하였으며 어디를 찾아야할지도 몰랐던 것이다.

약물치료를 시작하지 한달이 지나면서 서서히 얼굴에 웃음이 돌기 시작하였다. “지난번 병원에 들린 이후 한번도 오줌을 싸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몇달째 한번도 적시지 않았어요. 지난 밤에는 전처럼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남들처럼 되려면 아직 멀었나보죠.” 하며 실망을 하기도 하였다.

몇 년이 지나면서 차츰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실수를 하지 않게끔 되었다. 그러나 간혹 실수를 할 때면 불안해 하며 병원에 달려오는 것이었다. 차츰 용기를 가지고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하더니 드디어는 결혼을 하겠다고 온 것이었다.

오줌싸개는 의학적으로는 야뇨증이라고 한다. 오줌싸개는 기원전 1550년 전에 파

피루스에서도 기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5세 이상의 건강한 어린아이가 일주일에 3번 이상 본인도 모르게 소변이 나온다면 야뇨증이라고 한다.

오줌싸개의 발생빈도는 어떻게 될까.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어린애가 머리에 키클 뒤집어 쓰고 동네에 소금 얻으러 다니는 장면이 나오면 대부분 오줌싸개를 연상할 정도로 흔하다. 일시적으로 가장 많은 시기는 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이나 직후이다.



처음 가게되는 학교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싼다고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세 살 이상이 되면 소변을 가리게 된다.

그러나 오줌싸개는 여섯 살까지는 10%에서 발생하며 열네 살에는 5%에서 나타난다. 생각보다는 나이를 먹어서도 많은 숫자에서 밤에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고생하는 경우는 약 일천명 중에 한 명 정도에 불과하다.

과연 이렇게 나이를 먹도록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이론들이 있어왔으나 지금까지는 약 반수에서는 신경계통의 완성도가 미처 이루어지지 못해서 생긴다고 본다. 또한 30%는 정신적인 요인 때문에, 20%는 기질적인 요인 때문에 생긴다고 본다. 통상적으로 아이들이 한 살 반이 되면 소변을 가리기 시작한다. 이때 부모들이 소변 가리는 방법을 교육시키게 된다.

만일 이때 교육에 실패를 하게 되면 유년기가 지나도록 뇌에서 조절하는 기능을 터득하지 못하게 된다고 본다. 일부 학자들은 부모가 감정적으로 불안해한다면 아이도 불안해지면서 야뇨증으로 겪는다고 보기도 한다.

야뇨증이라고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 당시 다른 질환 때문에 야뇨증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변 나가는 길에 염증이 있다던가 뭉가에 의해 막혀있던가, 척수손상 등으로 소변조절이 곤란할 수도 있다.

밤에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이부자리에 지도를 그리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도 대단한 스트레스이다. 요즘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캠프나 수련회니 하면서 어린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침벽에서 자는 기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야뇨증이 있는 아이는 모르는 곳에서 자기를 꺼려하게 되며 부모도 선뜻 보내기가 어렵다. 아이는 자신의 비밀을 감추고자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필자에게 치료받는 꼬마 환자 중에는 부모 말은 안들으면서 악먹는 일은 남이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꼬박 챙겨 먹는다며 신기해한다.

현대의학에서 야뇨증은 더 이상 감추고 있을 병이 못된다. 야뇨증으로 인하여 아이는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되며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 야뇨증은 치료약이나 방법의 발달로 인하여 많은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이윤수비뇨기과 원장